



“물류컨설팅 수행작업”은 최고의 교육과정

제4기 물류전문컨설턴트과정을 마치고

4기 물류전문컨설턴트 (주)세방 / 과장 성 기 택



세월은 참 빠르다는 느낌이다. 내가 첫 직장으로 물류회사에 입사한 지 10년이 흘렀고 여전히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여러 부문에서 변하였다. 지난 1996년 입사하여 처음 일하게 된 곳은 인천항 부두내 하역팀이었다. 하역에도 여러가지 일이 있지만, 내가 맡은 일은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싣고 내리면서 화물의 안전과 검수를 하는 것이었다. 그 때 놀랐던 것은 우리나라 산업분야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낙후된 시설로 작업을 하는 곳도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 후 10년,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이 그렇듯이 물류분야도 지금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그야말로 옛말이 되어서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추진한 부산항 및 광양항의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구축은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최근에는 본격적인 운영서비스에 들어갔고, 각 시도 지방자치

체에서 추진했던 항만건설 사업은 우리나라를 항만 부족국가에서 항만 과잉국가로 변화시켰다. 국제물류 뿐만 아니라 가건물 수준의 초라한 내륙물류센터는 대전 우편집중국을 비롯한 대형 유통회사, 택배업체 등이 물류센터 구축에 수백억의 자본을 투자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중에 단연 으뜸은 IT의 눈부신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단, 물류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IMF관리체제를 벗어나 비약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결정적인 공헌을 하면서 고용과 산업발전 측면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IT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특히, 종래의 물류산업이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었다면, IT의 발전은 물류를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가는 중심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선진경제 국가의 물류체제와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러나, 시간과 노력의 속도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인재양성의 문제다. 인력은 생존방식이 유전자를 통해 유전정보화 하여 진화하듯 축적된 경험과 이론적 검증의 수많은 반복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단기간에 그리고 일부분에서 노력한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지대학교와 한국물류협회가 산학협력과정으로 3월과 9월에 개강하여 15주 과정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물류전문컨설턴트양성과정은 현 시점에서 우리 물류산업의 가장 절실한 물류전문인

력을 배출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다.

특히, 기존 현장학습 위주의 실무교육이나 교과서 위주의 일반론적인 수준의 교과과정에서 탈피하여 미래 물류산업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개발하며 물류전문인력들 간의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사내에서 교육생 공모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반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지만, 현역에서 겪었던 부분을 이론적으로 검증해보고 내가 갖추고 있지 못한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에서 과감히 교육에 참여기로 결정했다. 특히, 교육과정중 싱가포르 해외연수는 선진물류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일 명지대 경영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장장 3개월 여에 걸친 훈련이 시작됐고 동종 업계의 여러 기업에서 오신 새로운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오길 잘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커리큘럼을 미리 받아보긴 했지만 전 과정에 대한 전만술 주임교수님의 개괄적인 설명은 향후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셨고 1,2,3기 선배님들의 축사는 낯설은 첫 발의 두려움을 씻어 주었다.

물류전문컨설턴트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 교과과정은 타 교과과정보다 좀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다루었다. 특히, 컨설팅 총론과 기법론, 수배송, 물류센타, 포장, 정보시스템, 국제물류, 물류혁신 등 각각의 물류기능별로 나누어 세부적인 물류전문지식 심화내용과 컨설팅 사례를 통해 우리 물류산업의 현주소와 물류현장에서 자주 맞부딪치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 점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타교육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컨설턴트 교육과정이 있다. 바로 교육생들이 4개의 테마-국제물류, 보관, 정보시스템, 수배송-를

선정하여 각자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전문컨설턴트와 함께 가상의 컨설팅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수십 번의 강의보다 교육생 스스로가 주어진 과제를 분석하고 사례를 수집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훈련을 함으로써 실무적이며 활용 가능한 교육내용을 체득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싱가포르에 6박 7일 연수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오른다. 수년 전부터 우리는 물류선진화를 위해 해외 유수의 물류업체나 항만을 시찰하고 있다. 3년 전에 있었던 일본 방문에 이어 두번째다. 그런데, 7일 동안 싱가포르 물류전문교육기관에서 싱가포르 현지 실무진에게 교육을 받고 우수 물류현장을 방문하면서 과연 싱가포르와 우리나라가 물류에 있어서 많은 격차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싱가포르가 전세계에서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규모나 시설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다만, 그 사람들의 말처럼 싱가포르의 지리적 우수성이 오늘날 세계 초일류 항만국가로 성장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닌가 싶다.

결국, 앞으로 조금만 더 우리 물류인들이 열심히 한다면 싱가포르나 일본이 역으로 벤치마킹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 오리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전만술 주임교수님 이하 지도교수님, 강사님, 협회 관련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4기가 구호대로 '四氣衝天' 할 수 있도록 건투를 빈다. **물류**